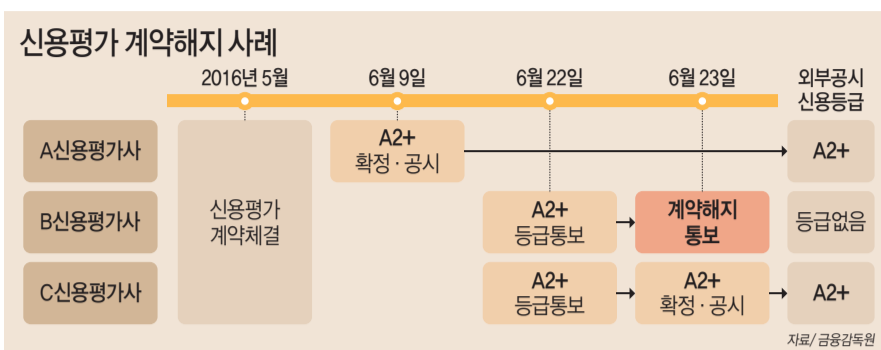


기업 신용등급 쇼핑 차단... 등급 통보 후 철회 제동

증권신고서에 체결·철회 기재
공시 내역 등은 정기 제출해야
신유형 등급쇼핑 여부도 점검



기업들의 신용 등급쇼핑에 감독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여러 신용평가사와 계약을 체결하고는 불리한 평가를 내린 곳과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좋은 등급이 나오면 기존 등급을 철회하는 경우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신용 등급쇼핑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등급쇼핑이란 기업이 여러 곳의 신용사 중 유리한 등급을 부여하거나 부여할 것 같은 신용사로부터 선택적으로 평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법규상 평가계약 체결 전에 좋은 신용등급을 선택하는 등급쇼핑은 금지돼 있지만 신용 등급쇼핑은 평가계약 체결 후에 계약 해지, 미공시 전환, 신용등급

철회 등을 통해 이뤄졌다. 실제 한 기업은 신용사 A, B, C 세 곳과 신용평가 계약을 체결했다. A와 C사가 A2+ 신용등급을 부여하자 기업은 결과를 수용했고, 등급이 확정·공시됐다. 그러나 A2 신용등급을 내놓은 B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평사가 계약해지 우려 등으로 독립되고 정확한 평가의견을 부여하지 못할 개연성이 있으며,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낮은 신용등급을 배제시켜 발행금리 산정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유사한 형태의 등급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신고서에 평가계약 체결·철회 내역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발행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후에는 계약 철회, 신용등급 미공시 전환을 제한하며, 관련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새로운 유형의 등급쇼핑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권민수 금감원 신용정보평가실 실장은 “신용평가 계약 취소·철회, 평가등급 공시·미공시 전환 내역을 정기적으로 받아 새로운 유형 등급 쇼핑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아우디A6.

아우디, 수입차 시장 단숨에 '3위' 진입

'디젤 게이트' 이후 2년 동안 국내 판매에 나선 아우디코리아가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다. 지난 4월에 단숨에 국내 수입차 시장 3위를 차지했다. 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전년 동기(2만5111대)보다 29.3% 증가한 2만5923대로 집계됐다. 올해 누적 대수는 9만3328대로 전년 동기보다 24.4% 증가했다. 브랜드별로는 2165대를 판매한 아우디코리아가 3위로 업계 복귀를 알렸다. 아우디의 화려한 컴백으로 메르세데스-벤츠와 BMW 등 수입차 선두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1위는 메르세데스-벤츠로, 7349대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2위는 BMW코리아가 6573대를 판매했다. 이어 아우디코리아를 비롯해 한국도요타

(1709대), 포드(1054대), 랜드로버(911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아우디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중형 세단 A6 35 TDI는 지난 한 달간 1405대가 팔려 베스트셀링카로 꼽혔다. BMW코리아가 판매 중인 520d(1357대)와 벤츠코리아의 E 200(1257대)의 경우 각각 베스트셀링카 2, 3위에 올랐다. 한국도요타의 캠리 하이브리드는 766대가 팔리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연료별로 보면 디젤(경유) 50.0%(1만 2955대), 가솔린 41.5%(1만 758대), 하이브리드 8.3%(2160대) 순으로 집계됐다. 윤대성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브랜드별로 물량 부족 및 신차 대기 수요 등이 있었다”며 “수입차 시장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계륵이던 '우선주', 재평가에 투자매력 부각

한국기업 투명성 높아져 재평가
보통주보다 39.76% 주가 낮아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현황)

(단위: %, %p, 십억)

순위	종목	과리율	과리율	증감률	시가총액		비중
					우선주	보통주	
1	삼성전자우	19.81	19.60	0.21	38,404	340,224	11.29
2	현대차2우B	31.25	32.45	-1.20	4,138	35,244	11.74
3	현대차우	37.56	37.15	0.41	2,508	35,244	7.12
4	아모레퍼시픽우	49.22	32.82	16.40	1,885	20,548	9.17
5	LG생활건강우	44.17	36.59	7.58	1,629	21,709	7.51
6	LG화학우	41.30	33.27	8.03	1,530	23,931	6.39
7	LG전자우	59.36	57.53	1.83	709	16,610	4.27
8	삼성화재우	31.46	33.27	-1.81	584	12,649	4.62
9	한화3우B	57.11	56.80	0.31	380	2,953	12.86
10	S-에우	14.18	18.00	-3.82	380	12,384	3.07

‘사자나 찢찢하지만 배당을 보면 구미가 당긴다’. 주식시장에서 우선주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시각이다. 그저 그런 주식으로 여겨졌던 ‘우선주’가 투자 측면에서도 재조명 받고 있다. 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다 한국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코스피 상장사의 보통주와 우선주 주가 차이도 최근 1년간 더 벌어졌다. 8일 한국거래소가 우선주가 있는 코스피 상장사 78개사의 지난 2일 현재 주가를 분석한 결과,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평균 39.76% 주가가 낮았다. 1년 전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가 괴리율(37.84%)보다 1.92%포인트 더 벌어진 것이다. 주요 우선주 종목별로 괴리율을 보면 삼성전자는 19.81%로 1년 전의 19.60%보다 0.21%포인트 확대됐다. 같은 기간 아모레퍼시픽우(32.82%→49.22%)나 LG화학우(33.27%→41.30%)

도 괴리율이 확대됐다. 반면 S-Oil우(18.00%→14.18%), 삼성화재우(33.27%→31.46%), 현대차2우B(32.45%→31.25%) 등은 괴리율이 축소됐다. 지난 2일 현재 괴리율이 가장 큰 우선주는 남양유업우(68.44%)였고 금호석유우(66.45%), 대림산업우(60.1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우선주 할인의 근본적 이유는 의결권 가치이다. 기업 투명성이 높을수록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은 축소되는 반면 소

액주주의 이익훼손이 줄어들어 주주 간에 누릴 수 있는 기업가치의 차이가 없어진다. 배당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배당수익률이 높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액면가의 1% 높은 배당금을 받고, 주가도 평균 40~50% 할인 받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이후 연도별 우선주와 보통주의 배당수익률 추이를 보면 우선주는 평균 1.5%~2%의 높은 배당수익률을 기록했다. /김문호기자 kmh@



국제유가 상승에 국내 휘발유·경유도 오름세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8일 국제유가 상승세에 국내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한은 “초대형 IB 출현으로 단기 금리 상승 전망”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이른바 초대형 투자은행(IB)들의 출현으로 단기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17년 단기금융시장 리뷰’에 따르면 초대형 IB들이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시하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단기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초대형 IB는 자본금 3조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증권사 가운데 투자은행의 주요 업무인 헤지펀드에 대한 증권대여와 자금 지원, 기업 신용공여 등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을 일컫는다. 현재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등 6곳이 해당된다. 정부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허용되는 신규자금조달 수단을 차별화하는데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본금 4조원 이상이어서 어음발행 등 단기금융업도 허용되고 있다. 다만 아직은 한국투자증권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상태다. 한은은 국내 시장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초대형 IB의 발행 어려움을 통한 자금 조달은 단기금융시장의 수급과 금리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실제 지난해 11월 초대형 IB 가운데 단기금융업무로 최초로 발행된 한국투자증권 어음의 금리는 2.3%로 금융권 기대 금리(1% 후반)를 상회했다. 한은은 다만 “이들 사업자가 발행 어려움을 통한 자금 조달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당분간 단기금융시장에 미칠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초대형 IB들이 스타트업, 고수익채권, 4차 산업 업종 등 신생기업, 차세대 성장 산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만큼 제도가 정착하면 생산적 자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사업 확장 과정에서 수익성을 높이고자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면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정책당국은 향후 초대형 IB들

의 투자 행태와 리스크, 중소형 증권사의 경영 상황, 단기 금융시장 환경 변화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풀, 환매조건부매매,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등 국내 단기금융시장 규모는 277조원으로 전년 250조원 대비 11.0%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14.6%보다 낮았지만 2014년 8.6%, 2015년 2.6% 보다는 높았다. 환매조건부매매(RP) 시장은 61조5000억원으로 18.5% 늘며 단기금융시장의 성장세를 이끌었다. 헤지펀드, 채권형 펀드 등이 레버리지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금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이 주로 1년 이내 자금을 조달하고자 자기신용으로 발행하는 단기 금융상품인 전자단기사채 시장도 43조1000억원으로 24.9% 늘었다. 기업어음(CP) 시장은 151조2000억원으로 7.3% 늘었다. /이봉준 기자 bj35sea@